

순창군, 지역개발 역량 입증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순창군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공유하고 정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사와 본선 발표를 거쳐 총 4개 지자체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순창군은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순창군이 발표한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전통 장류와 발효문화를 단순 1차 산업

에 그치지 않고, 산업·연구·관광·체험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지역발전 모델로 확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발효테마파크 중심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유용미생물은행 등 발효·미생물 기반 산업화 지원시설 조성 △글램핑장·위더파크 등 민간투자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성과 등이 꼽힌다.

순창 발효테마파크는 연간 방문객과 입장 수입이 지속 증가하며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내 다수 장류·식품·

바이오 관련 기업 입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순창군이 추진해 온 '장동산업 기반 융복합 지역개발 전략'이 국가적으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부합하는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순창군의 발효문화산업 기반 지역개발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 센터와 순창 정독타워 등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동부권을 대표하는 산업·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정착

순창군보건의료원, 자원순환 문화 확산 앞장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장례식장에서 전면 다회용기 사용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1회용품 ZERO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올해 4월 1일부터 순창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기존 1회용 접시, 컵, 수저 등을 모두 세척 후 반복 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크게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

장서고 있다.

다회용기 도입 전에는 빈소 한 곳당 평균 15개(50L 종량제 기준)의 1회용품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도입 이후는 폐기물 배출량이 약 80% 이상 감소했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다회용기 세척 비용은 전액 지원 받아 운영된다.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전면 배제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어 순창군의 실천 사례는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례식장 이용객과 조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환경을 고려한 장례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제34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날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0일간의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해 군정 전반과 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군민 생활과 직

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예산안 4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실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날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0일간의 제34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의결사항의 조례안으로는 △장종민 의원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 △양주영 의원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규 의원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흠 의원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 「임실군 산발방화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운 의원 「임실군 난립,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어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분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 127건(시정 19건, 처리 29건, 건의 79건)의 개선사항이 담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총 5,22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본격화한다.(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

임실 이도지구, 노후주거지정비 탄력

국토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임실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본격화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임실을 이도지구가 선정돼 총 215억원(국비 110억원 포함) 규모의 대규모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가 밀집돼 있으나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실을 이도지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주택정비계획과 생활체육시설·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정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주민공동체 공간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팔복길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확정된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48곳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실군은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노후화, 기반 시설 부족, 공동체 기능 약화 등 노후 주거지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인구 유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한센인 정착마을서 피부과 이동진료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운재)는 지난 18일, 한센인 정착 마을인 보성마을에서 한센병 등록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센병 및 피부질환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경계 합

병증 발생 위험이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한센병 조기 발견 및 피부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동 진료는 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이동진료반이 한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와 상담, 투약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원푸드 농식품가공 기술이전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최근, 원푸드 농식품가공 기술이전 교육을 추진, 지역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실용화 보급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특산물 기반 가공 기술의 적용 확대와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관내 식품제조가공 및 외식사업체 운영자, 농업인 등 12명의 교육생이 참석하여 긍정적 평가를 얻



원푸드 농식품가공 레시피 표준화 및 기술이전 컨설팅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센터 직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제4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순창군이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열고 지역 안보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군·경·소방 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를 의장으로 관계 기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통합방위 추진 결과 보고 △2026년 통합방위 추진 계획 △2026년 민방위계획(안) 및 예비군 육성지원 계획(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기관별 협조사항과 기타 안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제773부대 3대대와 순창군 안전재난과의 공동 보고를 통해 통합방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상세히 공유됐고, 실질적인 민방위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동물병원 화재예방 홍보 나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인덕션(전기레인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이 인덕션 터치버튼을 발로 누르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발적 행동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외출할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과 전기레인지 사용 환경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접점이 높은 관내 동물병원과 연계해 인덕션 화재 예방 홍보물을 비치하고, 대기 공간을 활용한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인덕션 터치 잠금장치 설정 △사용 후 전원 차단 △조리 공간 내 반려동물 접근 제한 △전기기기 주변 가연물 제거 △외출 전 안전 점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향토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통부(廣通府)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